

사 설

경제캠페인, 단발성은 안된다

IMF구제 금융 지원으로 대변되는 심각한 경제 사정에 시민 사회단체들은 달려 모으기와 절약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와 시민 단체들은 해외 여행을 자제하자는 국민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미 예정되어 있던 해외 견학이나 공식 행사도 취소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 등 시민 사회 종교 단체도 "국민 모두가 난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경제 살리기 범 국민 운동"을 결성했다.

국민들의 과소비를 문제 삼던 언론과 방송도 이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입장이다. 캠페인 진행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온 국민이 동참 할것을 호소하고 있다.

IMF최대의 구제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 사정에 직면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함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 어려운 때일수록 단결해야 함은 만고의 진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단발성 캠페인이나 운동이 자칫 한국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호명할 수 있는 우리 때문이다. 즉 한보 사태를 시작으로 이어진 재벌들의 연쇄부도와 이로인한 부실채권으로 야기된 외환 위기를 국민의 과소비 탓으로만 돌리는 우를 범할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전체 국민중 호화 외제차를 소비하면서 경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전체 국민중 몇퍼센트나 되겠는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진 말년 상관하지 않는 '철없는 국민'이 아니라 불행이 겹치면 실업자가 되기 쉬운 '서민'들이다. 실제로 아시안 위기스트리트 저널리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소비는 일본의 절반에 불과하고 미국의 1/3에 지나지 않으며 저축률은 35%로 OECD(경제 협력 개발기구)중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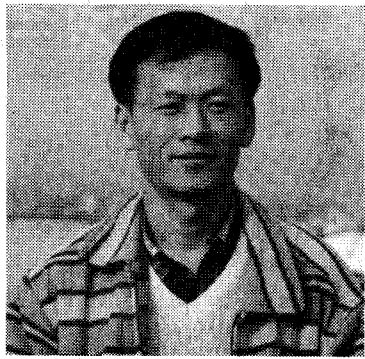
물론 우리의 소비행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가 모든 책임을 정부와 기업에만 돌리려는 건 아니다. 또한 경제 살리기 국민운동이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부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벼랑끝으로 몰고온 근본적 원인을 치유하지 않는다면 이번 캠페인은 그 본래의 효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몸집만 불려온 재벌과 일관된 경제정책을 펴오지 못한 정부의 진정어린 반성 및 스스로의 개혁이 부재하다면 '경제 살리기 범 국민 운동'은 실효성 없는 공허한 캠페인에 머물고 말 것이다.

시론

맹진설이 금수강산 부순다

물을 먹기 위해 자연을 값아 먹나



최 승 국

(녹색연합 조직팀장)

최근 인제 내린천댐과 영월 동강댐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고 이곳을 보존해야 한다는 환경단체들과 이곳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천혜의 자연생태계 보고가 무모한 댐건설로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내린천과 동강지역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아마 환경적 가치보다는 래프팅으로 알려진 금류타기라는 스포츠 때문일 것이다. 이곳은 남한에서 금류타기 장소로 가장 적합하여 래프팅을 즐기는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린천이 열목어, 어름치, 하늬다람쥐, 수달등 각종 천연기념물과 희귀종식물의 보고이며 인근의 오대산과 방태산 지역은 남한에서 유일한 원시림이 훼손되지 않은

공급위주의 물관리 정책을 벗어나
관리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수자원의 보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채 잘 보존되어 있는 그야말로 생태계의 보고라는 것이다. 또한 영월 동강지역은 남한에서 유일하게 자연생태계가 완벽하게 보존된 비경이며 동강의 아름다움은 중국의 계림이나 미국의 그랜드캐니언에 비유될 정도로 주변의 생태계들은 자연녹지등급 8등급이상의 국상림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남한 유일의 원시림 파괴

흔히들 지구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에 환경적으로 잘 보존된 지역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댐을 건설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환경적으로 중요한 한 지역을 수장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엄청난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즉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왜 환경적 중요성과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

발을 무릅쓰고 내린천댐과 동강댐 건설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일까? 정부에서는 국내최대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저수용량 29억톤)이 홍수 조절 능력이 부족하여 폭우가 내릴 경우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조 절하기 위하여 상류지역인 내린천 일대에 2억7천5백만 톤 규모의 보조댐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 지역주민과 의회의 추궁과정에 있어서는 국민적 우려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수도권 용수 용이라는 지적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양강댐의 실제 저수량은 최대 16억톤에 불과한 것에서 정부의 논리가 허구임을 알 수 있다. 동강의 경우도 상수원 확보와 홍수조절의 명분으로 영월군 거문리에 약 7천톤 규모의 대규모 댐을 건설하려 하고 있는데 이지역 역시 뛰어난 자연환경 파괴와 지역의 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의 수몰, 수질악화 등의 이유로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1년까지 20조원의 예산을 들여 34개의 댐을 건설하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댐이 건설되면 지역의 수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와 지역공동체의 엄청난 파괴를 물고 온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용수부족 등의 이유로 댐건설을 강행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에서 생태계보존의 이유로 댐건설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과 정반대 현상이다.

물기근 위기 직면

그렇다면 정부에서 주장하는 물 부족 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실제 한국은 현재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머지않아 물기근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물부족의 원인은 물의 절대공급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강수량은 절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니지만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산생태계의 파괴와 짧은 하천길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부의 물관리 정책의 잘못에서 용수의 절대부족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한국의 물관리는 한마디로 엉터리인데 그 관리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다. 예를들면 수량은 건설교통부에서, 수질은 환경부에서, 농업용수는 농업부에서,

공업용수는 통상산업부에서 하고 있으며 강의 크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전체 용수량에 대한 파악이나 관리방안들이 전혀 체계가 잡힐 수 없고 각각의 목적에 따라 아무렇게나 관리되거나 파헤쳐지고 있는 것이다.

물관리 체계 통합 필요

그러므로 이땅에서 용수부족과 수질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물관리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나아가 노후관로의 교체 및 용수의 낭비요인을 막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녹색댐의 조성(인공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림을 비롯한 산림을 조성하고 사방공사를 하여 토양유실을 막고 수분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것만이 환경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식수를 비롯한 각종 용수를 풍부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제라도 주민들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생태계 보고를 보존하기 위해 내린천댐과 동강댐 건설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공급위주의 물관리 정책을 벗어나 관리위주의 정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PC 다시 부활하는 분서갱유, 'GEOC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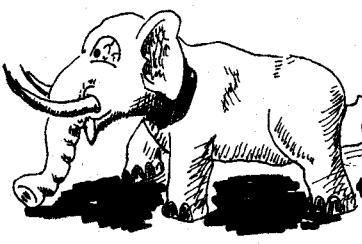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나? 인터넷 홈 페이지 제공 서비스 회사인 지오시티즈(www.geocities.com)가 정보통신부에 의해 접속이 폐쇄된 지 두 달가량이 지났지만 네티즌들의 항의는 계속되고 있다.

지오시티즈는 무료로 홈 페이지 개설과 이 메일을 제공해 주는 곳으로 현재 개설된 홈 페이지만해도 무려 1백만개. 게다가 이들 1백만개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이트들도 감안해 볼 때 지오시티즈의 통신망은 다분히 복잡하고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보부가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들을 통해 지오시티즈에서 천복사상을 중도하는 홈 페이지를 발견하고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들어 지오시티즈의 사이트를 원천봉쇄해 버린 것이다. 정보부의 이같은 조치는 이적 표현물을 차단하고자 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곳에 홈 페이지를 개설한 1천여 국내 이용자와 이 곳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으려 하는 수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접근조차 막아버린 꼴이 되고 말았다.

이에대해 PC통신의 한 이용자는 어느 도시에 간첩이 한 명 침투했다고 해서 그 도시를 원자폭탄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가라며(ID:XRAXSE) 지오시티즈도 무형의 도시임을 시사했다. 또한 사상용호 홈 페이지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 현재 도메인으로 등록된 호스트의 수는 수백만개가 넘는데 정부는 그것이 밝혀질 때마다 각각 차단할 생각인가(ID:el1000).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언론의 자유조차 유린하는 정부의 백태에 우리 네티즌들이 일어 서야 할 때이다(ID:zett)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 이번 사건을 단지 '정보통부의 인터넷과 정보화'에 대한 물이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 간파하기에는 국제 인터넷망에 너무나 수치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김현종 기자)

민주사회 '존장'으로의 한걸음



김용운 사회부기자

코끼리 무리는 대체로 여러 '가족'으로 구성된 집단을 이룬다. 이런 코끼리의 가족공동체는 하나의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간다. 이러한 사회 속에 우두머리는 없지만 위기관리라는 중요한 임무를 지닌 '존장'이 존재한다. 그들에게 가장 큰 위위상황으로 다가서는 것은 상아사냥꾼들의 밀렵.

이 세상에 천적이라고는 자연재해와 사람뿐인 그들에게 밀렵꾼들이 총을 들고 다가서면 존장은 후손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밀렵꾼을 향해 돌진,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 코끼리의 지도자는 자신의 몸으로 남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동족의 실질적 우두머리로 추앙받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한민족 공동체로서 민주사회라 불리우는 사회 속에 살고가고 있고 얼마 후면 우리의 '존장'을 선출한다.

그러나 민주사회라 칭하는 우리사회에는 진정한 '존장'의 자격을 지닌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존장'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은 TV광고등 감각적 홍보에만 치중하고 정작 그들이 외치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는 뒷전으로 한채 서로 헐뜯고 상처내기에 바쁘다. 자신의 홍보를 위해 독재자의 모습, 행

동들을 따라하고 어느 후보는 자신의 애국심을 강조하기 위해 존경하는 사람을 외국인에서 유명한 내국의 독립운동가로 바꾸기도 한다. 이런 선거를 통해 새로운 면모를 갖추는 TV토론회에서도 정책대결의 장이며 선진선거운화로의 발걸음이라는 각 언론의 극한이 무색할 정도로 각본에 짜여진 말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서로의 말꼬리잡기 일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정치와 부패정치로 일관된 지금까지의 우리 정치현실을 볼때 현재 TV토론회는 나름대로 새로운 선거문화에 대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토론회문화의 민주적 성격도 2인 토론등의 실질적 정책대결을 이끌어 낼수 있는 토론문화 정착없이 결국 구태의연한 후보간의 흑색 선전과 다름없는 사회적 모순으로 전락할 것이다. 대선후보들 가운데 '존경받는 우두머리'로서의 선출을 원치 않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국민의 '존장'으로 추앙받으려면 자신들만의 이미지 연출도 필요하겠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수립창구를 개설하고 국민의 어려운 현실 속에 뛰어들어 몸소 헌신하려는 진정한 우두머리로서의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

경희대학교 병설 간호전문대학

98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당신과 함께 제2의 나이트윙게일의 탄생을 위하여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학과명	전년도	모집인원	비고
간호학과	120	120	135
간호학과	120	120	135

2.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접수	1998.1.15(목)~1.26(일)	본대학 총무과 및 주요시설	*우편접수시에는 소정서류를 갖추어 전형료(우편소액)를 동봉하여 등기우송하여야 함
원서접수	1998.1.20(일)~1.26(일)	본대학 교무과	
예비소설	1998.2.3(화) 08:00	경희대학교 대운동장	
면접고사	1998.2.3(화) 10:00	본대학 면접고사장	(단 1월 26일 17:00까지 도착본에 신세 검사)
합격자발령	1998.2.5(목) 14:00	본대학 학원관	

3. 일반학선 전형

가. 지원자격: 심신이 건장한 여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1997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교육법에 의하여 위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전형방법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및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생활기록부)성적으로 진행한다.

1) 성적비율 비율 및 점수

구분	비율	점수
수능 성적	60%	40점
고교 성적	40%	40점

가) 학교생활기록부(생활기록부)가 있는자의 반영방법

구분	비율	점수
수능 성적	60%	40점
고교 성적	40%	40점

나) 학교생활기록부(생활기록부)가 없는자의 반영방법

구분	비율	점수
수능 성적	60%	40점
고교 성적	40%	40점

4. 정원외특별전형

구분	비율	점수
수능 성적	60%	40점
고교 성적	40%	40점

5. 수험생 주지사항 및 안내사항

구분	비율	점수
수능 성적	60%	40점
고교 성적	40%	40점

6. 기타 사항

구분	비율	점수
수능 성적	60%	40점
고교 성적	40%	40점

7. 특전

구분	비율	점수
수능 성적	60%	40점
고교 성적	40%	40점

8. 기타 사항

구분	비율	점수
수능 성적	60%	40점
고교 성적	40%	40점

9. 기타 사항

구분	비율	점수
수능 성적	60%	40점
고교 성적	40%	40점

10. 기타 사항

구분	비율	점수
수능 성적	60%	40점
고교 성적	40%	40점

11. 기타 사항

구분	비율	점수
수능 성적	60%	40점
고교 성적	40%	40점